

영웅조선의 7.27



위대한 전승의 축포가 하늘에 터져오르던 그 때로부터 어언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멀리 흘러갔어도 공화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승리의 7.27의 역사적 의미는 전후의 나날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더불어, 그 빛나는 표창인 금별메달과 더불어 오늘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영웅조선》, 《영웅인민》! 이것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타도한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안겨준 고귀한 명함이고 소중한 경의이다.

하다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메야 했던 이 땅의 인민이 어떻게 되어 세계의 강자를 때려부신 영웅인민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주체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길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은

부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저도 모르게 긴장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침략자들에게 의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엄중한 위협에 직면한 시기였던 것만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중대한 임무를 주시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일꾼들은 그나큰 걱정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표창문제에 대해 교시하시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전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인민군군인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제정하여야 하겠다고, 전투승리를 보장하는 데서 위훈을 세운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수여할 훈장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모두가 전쟁의 운명을 두고 걱정을 앞세우던 그때 그것도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

에 조국보위의 성전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군인들에게 가장 높은 칭호와 표창을 안겨 주고 싶으시어 친히 공화국영웅칭호제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어 어찌 그들의 심정이 격정으로 설레이지 않을 수 있랴.

이렇게 되어 주체39(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게 되었다.

전쟁개시후 5일만에 발표된 이 격동적인 소식은 원수 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얼마후인 1950년 7월 15일, 공화국에서 첫 영웅들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시각이 도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선전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10여명의 군관, 병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었던 것이다.

전쟁개시 3일만에 진행된

서해해방을 위한 돌격전의 선두에서 조선인민군 땅크병의 무비의 용감성을 과시한 전기영웅, 미제침략군과 처음으로 대결한 오산전투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태를 단단히 보여준 제4보병사단 제18보병련대의 련대장 리훈영,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키는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제2어뢰정대의 지휘관 김근우, 리완군영웅들, 《하늘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폭격기 《B-29》를 격추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의 용맹을 세상에 남김없이 떨친 비행사 리문순, 김기우영웅들...

그때로부터 3년간에 걸치는 전쟁의 전 기간 전선과 후방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세운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전쟁 전 기간 인민군용사들은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라》를 부르며 부모처자 두말로써 안기리라고 노래하며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고 후방의 녀인들은 적의 맹렬한 폭격속에서도 노래 《우리님 영웅되셨네》, 《아무도 몰라》를 부르며 전

선원호와 전시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큰 나라보다 영웅이 많이 나오면 안된다고 잡소리를 치는 사대주의자들의 꾀변을 단호히 일축해버리시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영웅으로 키워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행기 사냥군운동을 몸소 창조하시던 날에 있는 일이다.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비행기 사냥군조를 조직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명령에는 적비행기 3대를 떨치면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 때 대한 내용도 있었다. 사대가 끝수에 배인 자들은 그렇게 되면 큰 나라들보다도 영웅이 더 많아진다고 시비해나섰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에 영웅이 많으면 좋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고, 영웅이 1 000명이 나오면 미국비행기가 3 000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과 군대가 미제와 잘 싸워 다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하여 싸우는 고지는 물론 방방곡곡에서 비행기 사냥군 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미제의 공중비적들은 마을을의 락업처럼 떨어졌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전쟁 3년간 무려 598명(그중 2중영웅 5명)의 공화국영웅이 배출되는 자랑스러운 화폭이 펼쳐질 수 있었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어 이 나라의 수많은 평범한 아들딸들이 영웅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전후의 나날 공화국영웅으로 된 군인들가운데는 가정 환경과 해방전의 경력때문에 마음속고충을 겪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항공사령부(당시) 주요지휘위원으로써까지 성장하여 전승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리활영웅도 있고 전쟁전야에 자기가 이끌던 남조선군 대대와 함께 의거입북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강태무, 표무원영웅들도 있다.

강태무, 표무원영웅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살아온 나날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화국의 품이 온 민족이 안겨살 진정한 조국의 품이라는 것을 피절은 체험으로 깨달은 그들이었기에 진정한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수하기 위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펼칠 수 있었다.

강태무영웅은 한생을 총화하며 수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언젠가 최덕신이 나의 인생로정을 눈여겨보고서 젊어서 일찌기 끝은 길을 온 것이 부럽다면서 자기는 한생을 해마다 그 길을 멀리 에돌아 늦게야 왔노라고 만지시란을 감추지 못하였다. ...최덕신이 나의 삶에서 끝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1949년 5월의 입북거사를 녀두에 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의거입북후 나의 삶은 질과 내용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인제인가 외국의 한 언론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승리에 대하여 《너무도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다못해 아예 없어질 뻔한 미국의 《큰 주먹》과 세계의 찬란의 눈길을 모으며 승리의 단상에 오른 조선의 《작은 주먹》! 크지만 약한 리유, 작지만 강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신생조선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전승을 이룩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요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며 강철의 평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을 전승의 기적창조로 이끌어 주시었기에 이 땅에서는 역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될 수 있었으며 공화국은 미제와의 가벌치질한 전쟁에서 끝끝내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가 경탄하는 영웅의 나라로 존엄될 수 있었다.

박금순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7월은 참으로 의미깊은 달로 되고 있다.

1년 열두달중 한달인 7월이 승리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을 뿌리기 시작한 것은 70년전 바로 이달에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남김없이 과시한 위대한 전승의 금자탑이 세워진 그때부터이다.

미국이 리승만피괴들을 내몰아 도발한 침략의 6.25전쟁은 3년후 세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조선이 안아온 승리의 7.27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군사기적이었고 위대한 조선인민만이 창조할 수 있는 전승신화였다.

그때부터 7월이 오면 조선인민은 승리의 축포를 환희롭게 터쳐올리며 기쁨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승리자의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에 넘쳐 《침략의 6.25뒤에는 승리의 7.27이 있다.》고 웨쳐왔다.

그렇듯 자랑스럽게 70돌기를 새겨온 조선의 7월이다.

이 7월은 단지 전승의 7.27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면 누구나의 눈가에 환희롭게 안겨오는 날이 있다.

7월 28일.

이날을 공화국에서는 7.28의 기적적승리라고 부르고 있다.

2017년 7월 4일, 미국이 241번째로 《독립절》을 쇠던 그날에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차시험발사에 단번성공하였다는 경이적 소식을 이 세계에 전해졌다. 조선의 힘이 우주에 닿고 지구를 통째로 울린 사변적인 7월 4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20여일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완전성공하였다는 힘은 더욱 공고한 것으로 되었다.

조선은 작어도 큰 나라로 되게 한 그날들이 세계에 선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침략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 조선을 건드려면 누구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었다. 조선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는 대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 조선이 봉건의 오랜 잡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대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19세기 중엽 평양의 대동강으로는 미국의 침략선 《서먼》호가 그 최고양이마냥 거여들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조선침략사는 20세기 초엽 일본의 조선강점과 지배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로 이어졌고 1945년에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이어졌다.

뒤이어 미국은 전 조선을 지배할 목적으로 리승만피괴들을 사촉하여 1950년 6월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그때 갖 강건된 공화국이 가진 무장장비라야 보충정도였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서는 대양 건너에 트고앉아있는 미국이라는 침략의 본거지를 겨눌 수 없었다.

미국이 도발한 전쟁은 자연히 조선반도의 경내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결과 조선의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들이 폐허로 되고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생을 잃은 때 침략의 불을 지른 미국 땅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비단 조선전쟁만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 지금까지 미국본토에는 포탄 한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에서 7.28의 기적적승리로 형세는 달라지게 되었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의 쓰디쓴 패전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미국이라는 침략의 본거지가 무사치 못하게 되었다.

절대적 힘, 조강력을 떠올린 조선을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었다. 전승의 7.27을 영원한 승리의 명절로 해마다 성대히 경축할 수 있게 되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승리에서 영원한 승리로! 7월의 사변적인 날들은 이렇게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고 미국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패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조선의 7월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7월이 새겨주는 역사의 진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에는 모연배인 공화국기와 《생명보호요청서》가 나란히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자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격렬한 위훈을 세운 비행기사냥군 조원이가 가슴속에 품고있던 것이라면 후자인 《생명보호요청서》는 등불에 타죽는 부나비신세가 되어 땅에 곤두박힌 적 비행사들의 두려운 가슴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인민군전사가 가슴에 간직한 것이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 사상이 갈구한 것은 하나의 구차한 목숨이 아니라 높여주는 두 전승의 영연한 삶의 품, 행복의 전부인 조국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바쳐싸운 조국수호자들의 무한 대한 정신적우세와 맺은 팔라에 유혹되어 전장에 나갔고 저 하나의 목숨부지만을 생각하는 침략자들의 절대적인 멸세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명이다.

모연배인 공화국기와 《생명보호요청서》, 정녕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달라질 수 없는 조미대결전의 명백한 승패의 법칙을 소리쳐 전해주는 산증전, 역사의 교방장이다.

리창범

위대한 전승 70돌을 맞으며 참관자들의 행렬이 그칠새 없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

대전해방작전대형전경화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하나의 조각상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에서 완전포위섬멸된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 사단장 락너를 생포한 19살 인민군병사의 조각상이다.

락너의 철갑모를 한발로 지그시 밟고앉아 승자의 호탕한 웃음지며 장난기조차 엿보이는 꼬마병사의 모습.

인민군병사의 발밑에 깔려있는 패전장군의 철갑모는 《상승》사단이라 으시며 조선전쟁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처참하게 얻어맞고 비참한 꼴로 포로가 된 사단장 락너의 비굴한 상투처럼 안겨온다.

패전장군의 철갑바가지앞에 새겨진 왕별 두알은 대전의 불바다속에서 오행 너질한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장성우를

벗어던지고 허물한 사병운차림으로 가는 참관로정에 있는 락너의 조각상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대전해방전투에서 완전포위섬멸된 미제침략군 제24보병사단 사단장 락너를 생포한 19살 인민군병사의 조각상이다.

락너의 철갑모를 한발로 지그시 밟고앉아 승자의 호탕한 웃음지며 장난기조차 엿보이는 꼬마병사의 모습.

인민군병사의 발밑에 깔려있는 패전장군의 철갑모는 《상승》사단이라 으시며 조선전쟁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처참하게 얻어맞고 비참한 꼴로 포로가 된 사단장 락너의 비굴한 상투처럼 안겨온다.

패전장군의 철갑바가지앞에 새겨진 왕별 두알은 대전의 불바다속에서 오행 너질한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장성우를

한 조각상이 내리는 준엄한 경고를 두고

고 음악 판가 리절전에 펼쳐나선 꼬마병사.

그런 병사 앞에선 아메리카 제국의 로장도 한갓 목숨을 구걸하는 패전군으로 되고말았다. 그런 군대와 인민 앞에선 대전이 아닌 조선전장전체가 미제의 침략장군들을 매망의 무덤으로 되어버렸다.

꼬마병사만큼 청소하였지만 바로 그 꼬마병사처럼 뜨거운 조국애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충음을 간직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마침내 승리가 되었다.

바로 그리 하기에 김일성장군님 찾아주시는 학교, 나의 땅을 다시는 침략자 미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중함 그 모든것을 지켜 키보다 더 컸을 보충을 들



들었다.

바로 그리 하기에 김일성장군님 찾아주시는 학교, 나의 땅을 다시는 침략자 미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중함 그 모든것을 지켜 키보다 더 컸을 보충을 들

가 되었다.

령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있어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덩치 큰 《초대국》, 수백년동안 수백차의 전쟁에서 한번도 패한적 없었던 미제를 수차례의 면전에서 깔고앉아 영웅조선, 영웅군대, 영웅인민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냈다.

세월은 흘러도 승리는 련련히 이어지고있거니, 전후의 장장 70년동안에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은 과거를 잊고 덤벼드는 대아메리카제국에 패자의 락인을 번마다 더 깊이 찍어놓고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의 수호신으로, 사회주의의 억척보루로 자랑스럽게 솟아올랐다.

70여년전의 꼬마병사와 《상승》사단장, 대조되는 두 이름에 조미대결전에서 련련승의 전승신화를 창조

는 영웅조선의 자랑찬 역사와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하는 미국의 쓰디쓴 역사가 다 비껴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산만만하고 배짱든든하게, 호호탕탕하게 웃음짓는 꼬마병사의 발밑에 오늘날까지도 패전장군의 철갑바가지가 짓눌려있듯이 오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괴육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도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의 가스롭고 끈수없는 망동질을 받아 패로 거역히 굽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고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이다.

만약 미제가 서신락일의 비참한 운명을 선고받은 조선전쟁을 예세 부정하며 《합의 만능》에 사로잡혀 다시금 무모하게 이 땅을 침략하려한다면 그 후로는 어제날 같은 뼈아픈 수처로만 끝나지 않을것임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의 조각상은 경고하고 있다.

강성애

